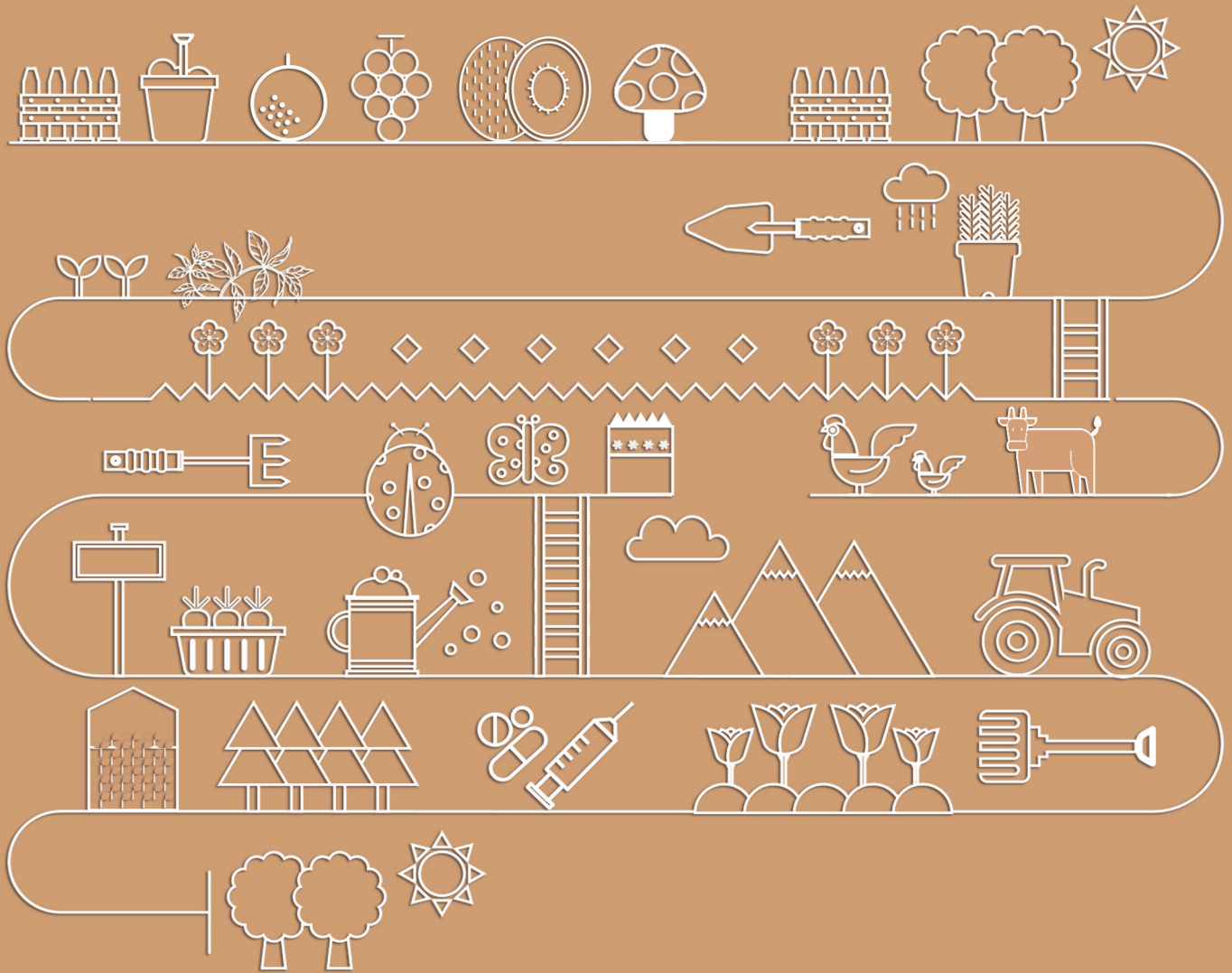


제3차년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화훼류종묘 수출연구사업단

(콜롬비아 동향보고서)



화훼류종묘 수출연구사업단

✓ 본 결과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o. 617076-05-3-SB110)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IPET) through (Export Promo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fund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No. 617076-05-3-SB110)

✓내용의 무단 복사, 인용을 제한하며 인용 시 대표 저자의 사전 승인을 요청함

주관기관명 : 화훼류종묘 수출연구사업단

목 차

1. 콜롬비아	
1.1 콜롬비아의 화훼시장	4
1.2 콜롬비아의 화훼수출 잠재력 증가	5
1.3 정부지원 증가	6
1.4 규제	7
1.5 Porter의 다섯 가지 강점 분석	8
1.6 콜롬비아 경제시장	14
1.7 2019년 콜롬비아 화훼시장의 사업 용이성	15
1.8 품목별 시장 세분화	16
1.9 콜롬비아의 화훼 농가 분석	24
1.10 콜롬비아 화훼 재배기술	27
1.11 공급망 분석	28
1.12 소비자 선호도 분석	32
1.13 콜롬비아 시장 트렌드	33
1.14 콜롬비아 화훼 재배면적	34
1.15 콜롬비아 화훼 재배방법	34
1.16 재배시설 발전 분석	35
1.17 재배기술 방법의 트렌드	36
1.18 화훼시장 트렌드	37
1.19 공급망 분석	38

1. 콜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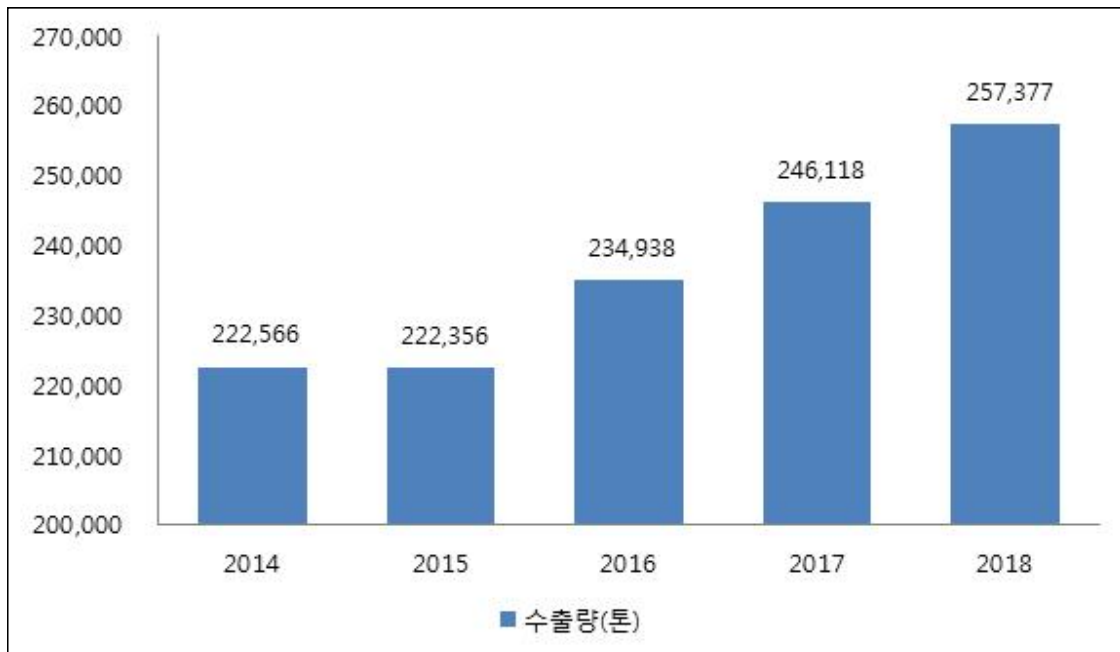
1.1 콜롬비아의 화훼시장

- 콜롬비아 화훼시장은 2018년 155,240만 달러였으며 2024년까지 204,150만 달러로 예상되며, 이 기간중 4.7%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장미 부문은 콜롬비아 화훼시장에서 21.8%를 차지함
- 콜롬비아 화훼시장의 카네이션 부문은 2018년 24,680만 달러였으며, 예상기간 동안 3.8%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4년까지 30,540만 달러로 예상됨
- 2018년 카네이션 부문은 콜롬비아 화훼시장에서 전체 시장의 15.9%를 차지했음
- 절화의 경우 네덜란드가 가장 큰 수출시장이며, 두 번째로는 콜롬비아가 큰 수출국임
- 콜롬비아 화훼 재배부문의 수출량은 2017년 248,118t에서 2018년 257,377t으로 늘었음
- 특히, 콜롬비아의 좋은 기후와 개발 기반시설은 절화 농가에서 좋은 품질의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
- 그 결과 콜롬비아 화훼시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줌
- 콜롬비아 꽃을 수입해 유통하는 업체는 미국 내 150여 곳으로 대부분 마이애미 지역에 위치해 있음
- 2017년 기준 콜롬비아 화훼 수출통계(ASOCOLFLORES)에 따르면 안개꽃, 거베라 등 총 수확 면적은 150ha였음

1.2 콜롬비아 화훼 수출 잠재력 증가

- 절화 수출국으로서 콜롬비아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음
- 콜롬비아의 절화 수출량은 2017년 246,118t에서 2018년 257,377t으로 늘었음 (표 1)
- 주요 절화 품목은 장미, 카네이션, 난, 수국, 알스트로메리아, 백합 및 국화 등이있음
- 특히, 중국에서도 콜롬비아 절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생산자 마케팅 협회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 재배된 절화가 중국에서 최근 5년 절화 수입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 콜롬비아의 좋은 기후와 개발 기반시설은 절화 재배자들이 양질의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영향으로 콜롬비아는 국제 절화 시장에서 탄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
- 또한, 이런 제반 요인은 콜롬비아 화훼 수요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앞서 언급한 요인과 별도로 수요 증가 및 저렴한 가격 또한 콜롬비아산 절화의 수출 잠재력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음

표 1. 콜롬비아 절화 수출규모(t) 2014-2018



1.3 정부지원 증가

- 콜롬비아 정부는 화훼농업 발전을 위해 구매한 장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배업자들이 현대적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고, 재배업자의 시설확충을 통하여 노동문제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했음
-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 당사국이 수출을 장려하는 자국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5년 콜롬비아 화훼수출국협회 (Asocolflores) 등 콜롬비아와 민간기업들이 콜롬비아와 네덜란드 정부와 함께 화훼를 포함한 콜롬비아 3대 생필품의 지속 가능한 수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콜롬비아 지속 가능경영 추진에 나섰다
-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 화훼시장에서 수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배업자들이 수국을 더 많이 재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음
- 콜롬비아는 캐나다 미주 무역관련 기술지원(CATRA) 프로그램을 통해 26개 협력사업의 구체화 및 실행에 대한 지원을 받기로 캐나다와 협약을 맺었음
- 콜롬비아 정부는 보고타 고원의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화훼 작물에 대해 통합 해충 관리권을 제시했음
- 콜롬비아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몇 가지 계획과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화훼 분야를 지원했음

1.4 규제

1.4.1 수출, 수입 시 규칙

- 콜롬비아는 절화 수출국으로는 세계 2위임
-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고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수입국에서는 해충감염을 막기 위하여 절화의 수입에 대한 규정과 제도를 개정하고 있음
- 2017년 호주 정부에서 자국 내 재배 농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절화 수입에 대한 생물보안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 생물보안 기준이 높아짐으로 인해 호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에 어려움을 느꼈음
- 앞서 언급한 표준과 규정 외에도 해충의 침입, 시장경쟁 등 자국의 재배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규정들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콜롬비아 화훼업체들은 농약과 비닐하우스 등 현대식 재배기술을 이용하여 양질의 꽃을 재배하여 기준을 유지하여 높은 투자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1.4.2 노동문제 증가

- Project for International Accompaniment and Solidarity (PASO)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화훼산업 종사자의 65%가 여성이다. 직원들은 최저임금, 추가근무시간, 보장되지 않는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그러나, 노조 가입자는 13만 명 중 200여 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이런 산업은 앞으로 심각한 노동력 가용성에 직면할 수도 있음

1.5 Porter 의 다섯가지 강점 분석

- 최종 소비자들은 꽃의 품질, 화색, 향기, 크기 등 품질이 좋은 꽃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따라서 구매자의 협상력은 온건함(표 2)
- 또한 최종 소비자들은 생화를 대체할 조화를 찾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체품은 존재하지 않음
- 콜롬비아에서 재배한 절화는 네덜란드, 케냐, 에콰도르와 같은 경쟁국들로 부터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에 직면해 있음
-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계획으로 화훼분야를 지원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높은 규모의 경제는 새로운 참여자들을 끌어들였음

표 2. 마이클 포터의 콜롬비아 절화에 대한 5가지 강점 분석표



1) 공급 업체의 다양한 능력 :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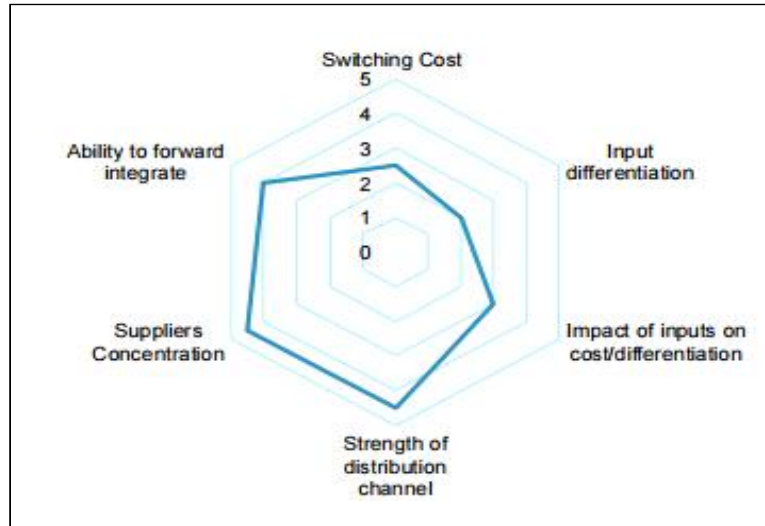


그림 1. 콜롬비아 절화 공급업체의 다양한 능력

Switching Cost : 전환 비용

Ability to forward integrate : 순방향 통합 기능

Suppliers Concentration : 공급 업체 집중

Strength of distribution channel : 유통 채널의 능력

Impact of inputs on cost/differentiation : 비용/차별에 대한 투입의 영향

Input differentiation : 차별성

- 최종 소비자들은 꽃의 품질, 화색, 향기, 크기 등 품질이 좋은 꽃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 (그림 1)
- 따라서, 구매자의 협상력은 온건하다. 콜롬비아의 화훼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절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배업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2) 소비자와의 협상 :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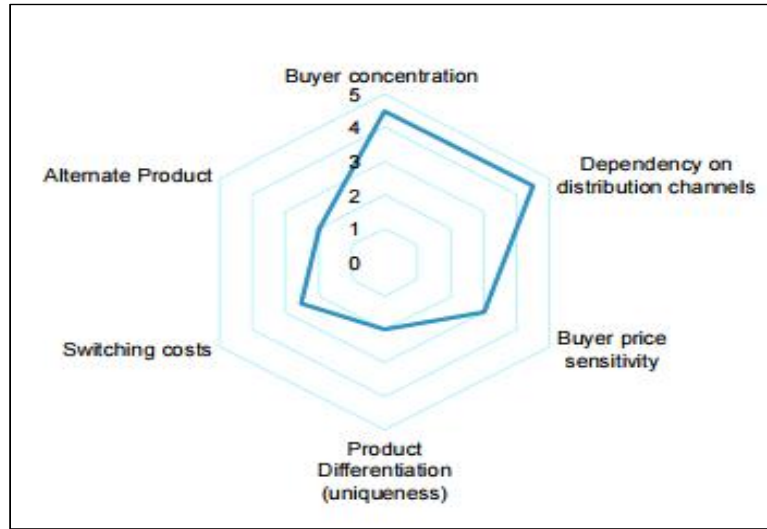


그림 2. 콜롬비아 절화 소비자 협상력

Buyer concentration : 소비자 집중

Alternate Product : 대체 제품

Switching costs : 전환 비용

Product Differentiation(uniqueness) : 제품 차별화 (고유성)

Buyer price sensitivity : 구매자 가격 민감도

Dependency on distribution channels : 유통 채널에 대한 의존성

- 특히 절화는 발렌타인데이, 어버이날과 같은 특별한 기념일 시즌에 많이 사용됨
- 이 시기에, 절화 수요량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음(그림 2)
- 하지만, 최종소비자들은 꽃의 품질, 화색, 향기, 크기 등 품질이 좋은 꽃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
- 따라서 구매자의 협상력은 온건함
- 그러나, 시장에서 신선한 꽃을 대체할만한 적절한 대체 상품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협상력은 존재함

3) 신규진입자의 위험 :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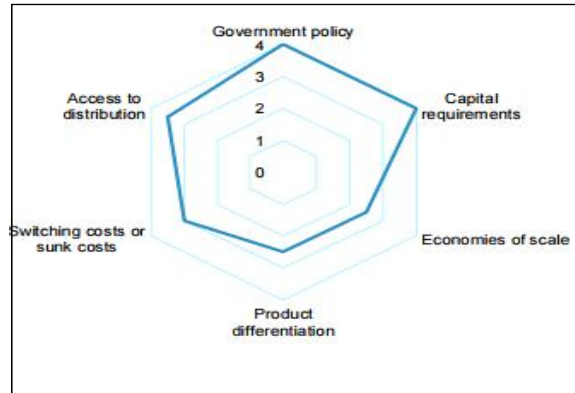


그림 3. 콜롬비아 절화 신규진입자의 위험

Government policy : 정부 정책

Access to distribution : 유통 접근

Switching costs or sunk costs : 전환 비용 또는 침몰 비용

Product differentiation : 상품 차별화

Economies of scale : 규모의 경제

Capital requirements : 자본 요건

- 콜롬비아 정부는 화훼 재배업자들에게 재배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그림 3)
- 이런 정책은 신규 진입자에게 화훼시장의 진입에 대한 매력이 됨
- 콜롬비아에서 재배된 절화는 낮은 노동임금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기로 잘 알려져 있음
- 이것은 높은 규모의 경제를 제공하여 신규 진입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4) 대체품의 위험: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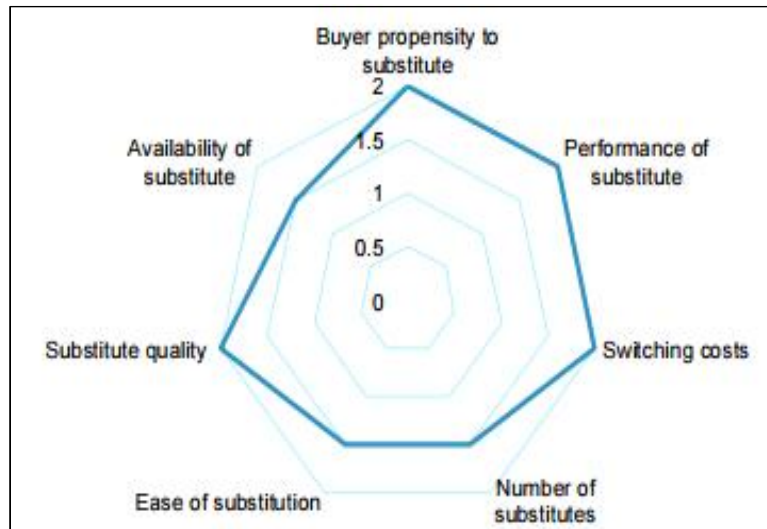


그림 4. 콜롬비아 절화 대체품의 위험

Buyer propensity to substitute : 대체재에 대한 소비자 경향

Availability of substitute : 대체재 이용가능성

Substitute Quality : 대체재 품질

Ease of Substitution : 대체재의 수급편이성

Number of substitutes : 대체재의 수

Switching costs : 전환비용

Performance of substitute : 대체재의 수행도

- 최종 소비자들은 조화보단 생화를 소비하기 때문에 꽃에 대한 대체물은 없음(그림 4)
- 종종 축하행사 때 조화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지만 꽃의 향기를 대신할 수 없기에 콜롬비아뿐 아니라 세계 화훼시장의 수요는 줄지 않고 있음

5) 경쟁우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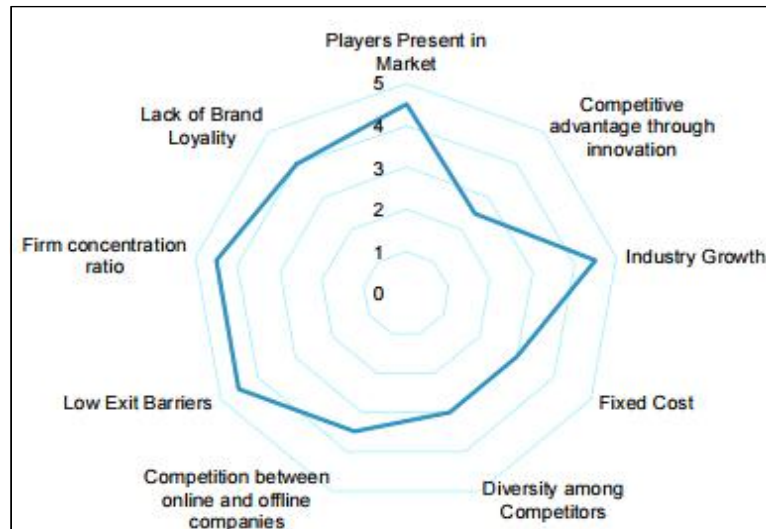


그림 5. 콜롬비아 절화의 경쟁우위

Players Present in Market : 시장에 나온 플레이어

Lack of Brand Loyalty : 브랜드 충성도 부족

Firm concentration ratio : 기업 집중 비율

Low Exit Barriers : 낮은 출구 방벽

Competi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companies : 온라인과 오프라인 회사 간의 경쟁

Diversity among Competitors : 경쟁사 간 다양성

Fixed Cost : 고정 비용

Industry Growth : 산업 성장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innovation : 혁신을 통한 경쟁 우위

- 네덜란드를 제외한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케냐가 세계 시장에 꽃을 수출하는 다른 경쟁국들임
- 콜롬비아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있기에 신규 진입자가 더 많이 몰리고 있음
- 화훼시장에서 콜롬비아 절화는 다른 나라꽃에 비해 제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높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음(그림 5)
- 정부는 또한 품질 면에서 상품 차별화가 높은 시장으로 수출하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수출입도 장려하고 있음

1.6 콜롬비아 경제시장

1) 경제시장의 개선

-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CED)의 Organization에 따르면, 인프라 프로젝트, 법인세 인하, 유가 등이 투자를 활성화시켜 국가 경제를 지탱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 여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2) 기술 분야 혁신

- 콜롬비아는 화훼 분야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원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음
- 그 역할로 새로운 품종의 생산, 화훼 제품의 품질 향상, 온실 작물 생산량 증가, 질병에 강한 식물, 유전적으로 우수한 품종 발굴이 있음

3) 우수한 기후조건

- 콜롬비아는 놀라운 생물 다양성뿐 아니라 다양한 기후와 생태계를 가지고 있음
- 콜롬비아는 연중 일정한 기온과 매일 같은 양의 일조량 (약12시간)을 보여주고 있어 화훼농사에 안성맞춤임

4) 정치적 안정

- 세계은행(WB)의 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콜롬비아의 정부 효과지수(-2.5 약세, 2.5 강세)는 -0.13으로 정부정책이 국가 내에서 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5) 세계화

-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꽃의 약 15.9%가 콜롬비아에서 재배가 되며, 가장 많은 양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임
- 콜롬비아의 화훼시장의 위치는 다른 나라의 화훼 산업과 강력한 무역 관계를 확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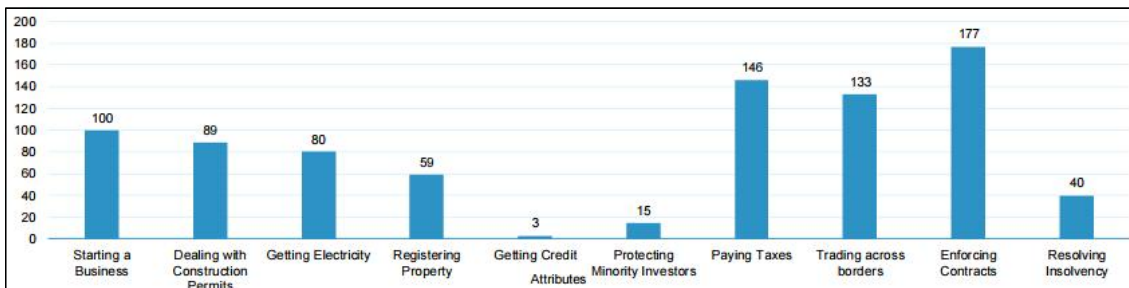
6) 효율적 사법제도

- 콜롬비아는 190개 경제국 중 사업 용이성 부문에서 65위를 차지했음
- 콜롬비아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에콰도르의 수출에 장벽이 생겨 결국 에콰도르의 경쟁력이 떨어졌음

1.7 2019년 콜롬비아 화훼시장의 사업 용이성

- 세계은행의 2016년부터 2018년 연간 신용등급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사업의 용이성 부분에서 총 190개 국가 중 2016년에는 117순위에서 2018년에 65위로 상승하였음(표 3)
- 우호적 기후, 유리한 관세, 노동력의 가용성, 그리고 우수한 기반시설은 콜롬비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함
- 또한, 콜롬비아에서 재배하는 가장 유리한 점 중 하나는 강력한 농업 환경에 의해 뒷받침되는 높은 성장 경제라는 점임
- 콜롬비아에서의 사업 용이성과 관련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현대 사회 기반 시설, 개방성, 무역 경쟁력 등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실내 화훼 화훼 창업자들에게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해 줌
- 소규모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콜롬비아는 15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소기업과 신생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원과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3. 콜롬비아 화훼시장의 2019년 사업용이성



Source: Mordor Intelligence Analysis

Production Value in USD million : 백만 달러의 생산 가치

Starting a Business : 사업 시작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 건축 허가 처리

Getting Electricity : 전기 공급

Registering Property : 부동산 등록

Getting Credit : 신용 받기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 소수 민족 투자자 보호

Paying Taxes : 세금 납부

Trading across borders : 국경 거래

Enforcing Contracts : 계약시행

Resolving Insolvency : 파산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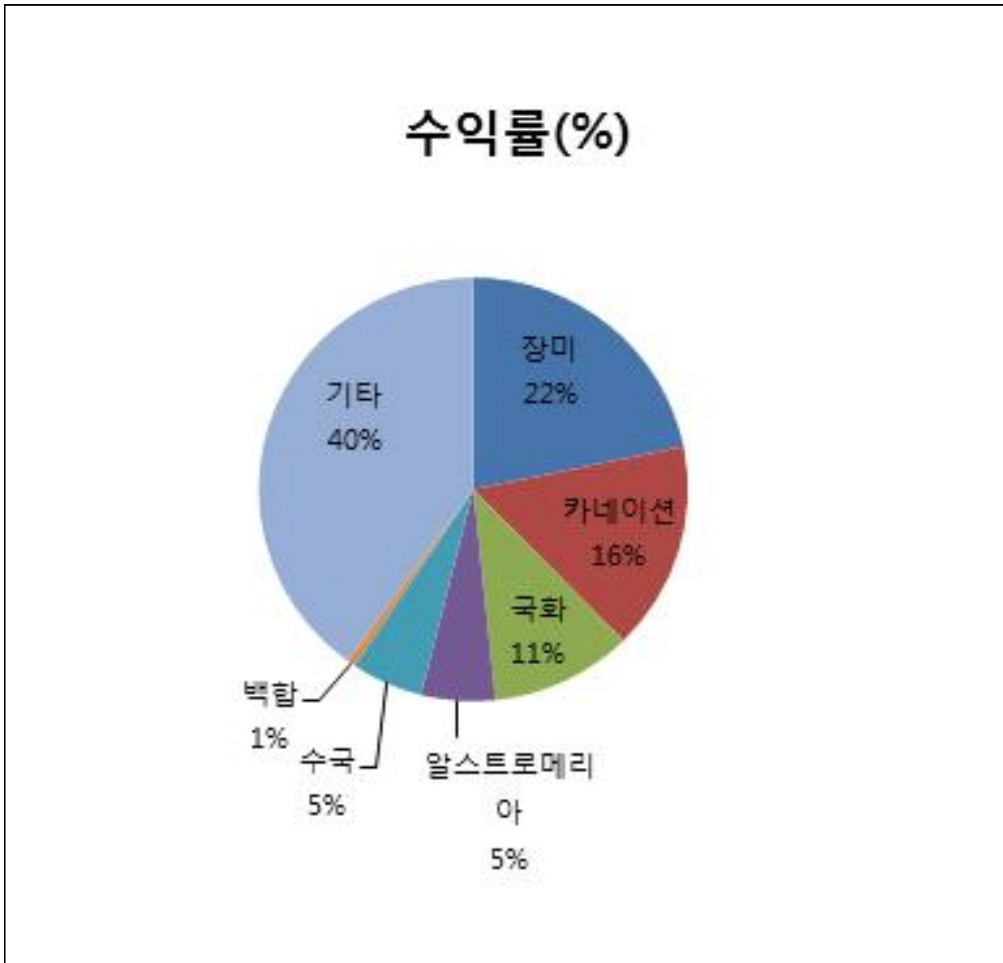
1.8 품목별 시장 세분화

표 4. 2015-2024까지 품목별 생산량 (100만 USD)

품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4년 (예측)	연평균성장률(% (2016-2024))
장미	336.5	324.3	329.3	338.4	347.7	424.0	4.0
국화	157.2	156.6	162.4	166.1	169.8	200.1	3.3
카네이션	226.1	226.5	239.9	246.8	253.9	305.4	3.8
알스트로메리아	81.4	83.2	83.6	86.2	88.9	107.8	3.9
수국	35.9	76.9	79.0	83.1	87.3	116.6	5.9
백합	2.1	6.7	8.0	9.2	10.0	14.9	8.2
기타	539.8	523.8	587.9	622.7	659.5	872.7	5.8
총	1,379	1,398	1,490.1	1,552.5	1,617.1	2,041.5	4.8

Source: Mordor Intelligenc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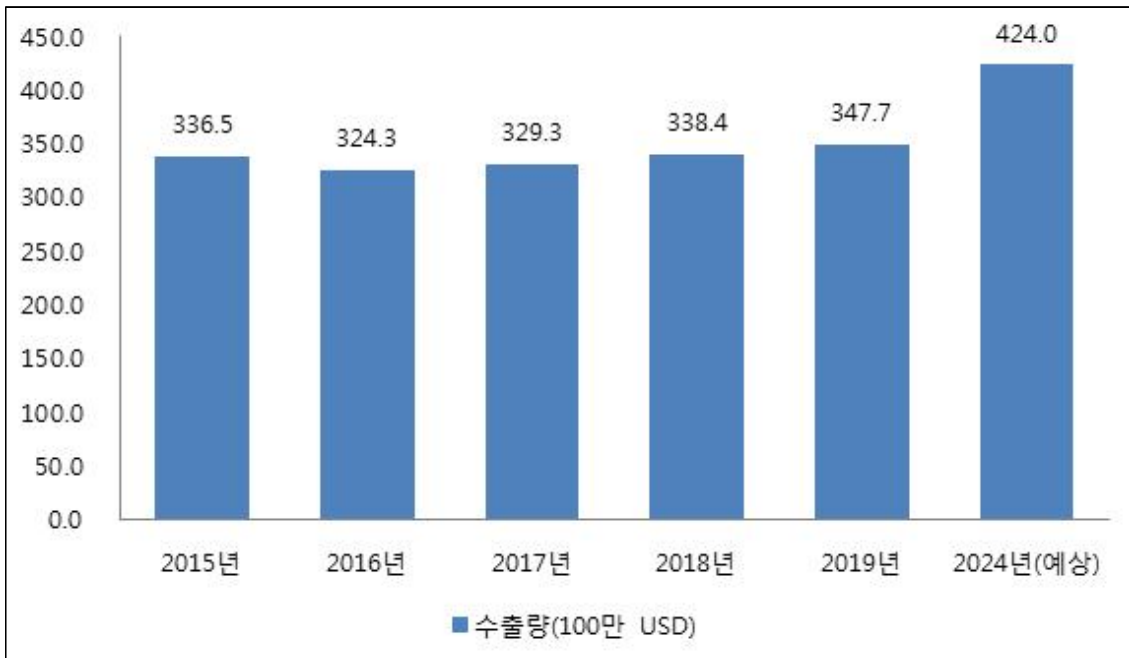
표 5. 2018년 콜롬비아 화훼시장 수익률(%)



1.8.1 장미

- 콜롬비아 화훼시장의 장미 생산량은 2018년 33,840만 달러였으며 2024년까지 42,4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기간 중 연평균성장률은 4.0%로 예측됨(표 6)
- 2018년 장미는 콜롬비아 화훼생산량에서 21.8%를 차지했음
- 콜롬비아 장미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며, 이 나라로부터의 수출이 75%를 차지하며, 2018년에는 러시아, 캐나다,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음
- 2018년 콜롬비아는 미국에서 절화 장미를 가장 많이 공급했으며 수출액은 25,000만 달러였음
- 콜롬비아 농장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Natural labels“의 중요성을 깨닫고 장미 재배 시 살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다른 수입국에서 장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음
- 콜롬비아 화훼시장 내 장미 수요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North Bogota에 있는 Jaroma Roses社에서는 2018년에 lola, pink mondial, salma, frutteto, sky garden, moonstone 등 10종의 새로운 장미 품종을 선보였음
- 콜롬비아 화훼시장은 매우 예민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장미의 공급과잉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성 향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
- Eurostat에 따르면, 2017년 장미는 콜롬비아에서만 2,610헥타르 농장에서 수확됨

표 6. 2015-2024년의 콜롬비아 장미 화훼시장(100백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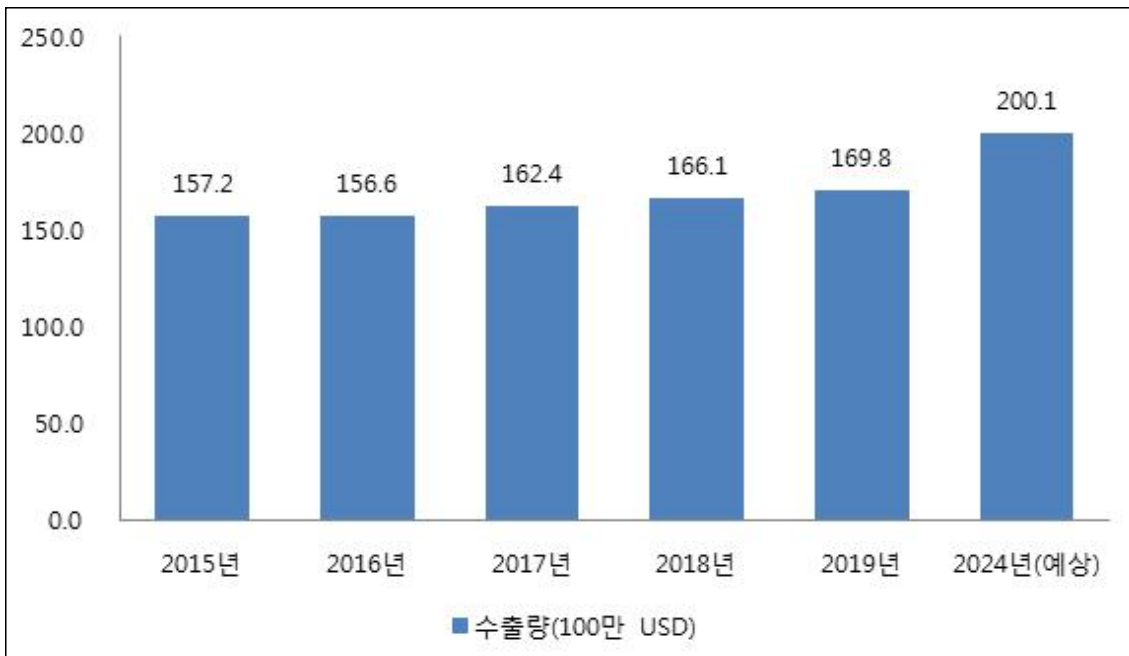
Source: Mordor Intelligence Analysis

Production Value in USD million : 백만 달러의 생산 가치

1.8.2 국화

- 2018년 콜롬비아 화훼시장에서 국화 품목은 전체 화훼시장의 10.7%를 차지했음
- 콜롬비아 화훼시장의 국화부문은 2018년 16,610만 달러였으며 2024년까지 20,0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기간 중 3.3%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함(표 7)
- 최근 국화시장에서 거래방법이 경매보다는 직거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럽시장에서 직거래가 증가하여 콜롬비아산 국화 수출량의 상승률이 더해지고 있음
- 미국에서는 콜롬비아에서 수입한 꽃을 주로 Walmart, Kroger, Fred Meyer, Safeway, Whole Foods Market, Albertsons, Costco와 같은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판매함
- 콜롬비아의 화훼재배 지역인 Antioquia에 있는 Flores El Capiro 농장은 약 75만평의 밭과 국화재배 온실을 가지고 있음

표 7. 2015-2024년의 콜롬비아 국화 화훼시장(100백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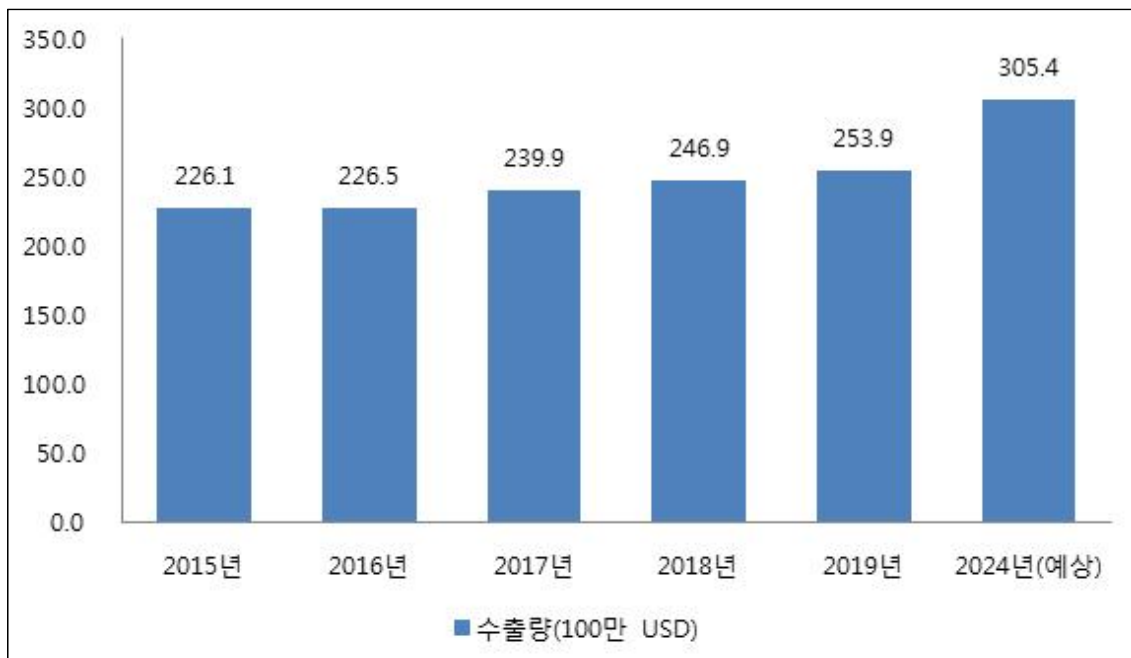
Source: Mordor Intelligence Analysis

Production Value in USD million : 백만 달러의 생산 가치

1.8.3 카네이션

- 콜롬비아 화훼시장의 카네이션 부문은 2018년 24,680만 달러였으며 2024년에는 30,5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기간 중 3.8%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콜롬비아 화훼시장에서 카네이션 품목은 전체 화훼시장의 15.9%를 차지했음(표 8)
- 콜롬비아 화훼 수출업자협회(ASOCOLFLORES)에 따르면, 카네이션은 콜롬비아에서 수출되는 절화 품종 2위임
- 2018년 이 꽃의 수출은 22,610만 달러로 기록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전체 카네이션 수출의 43%로 가장 많았음
- 2018년에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은 수출량뿐만 아니라 수출액에서 카네이션의 최대 수입국이 콜롬비아였음
- 콜롬비아는 카네이션 세계 최고의 생산국이며, 특히 다양한 색으로 장식된 독특한 복색의 카네이션이 많이 재배됨
- 재배와 증식을 전문으로 하는 Natura Breeders社は 자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연구 및 개발했음
- 또한, 콜롬비아 화훼업계는 세계 화훼시장의 미래를 위하여 연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한 회사는 수출을 위해 생명공학을 가미한 꽃을 재배하고, 온실 조건에서 유럽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파란색 카네이션을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음

표 8. 2015-2024년의 콜롬비아 카네이션 화훼시장 (100백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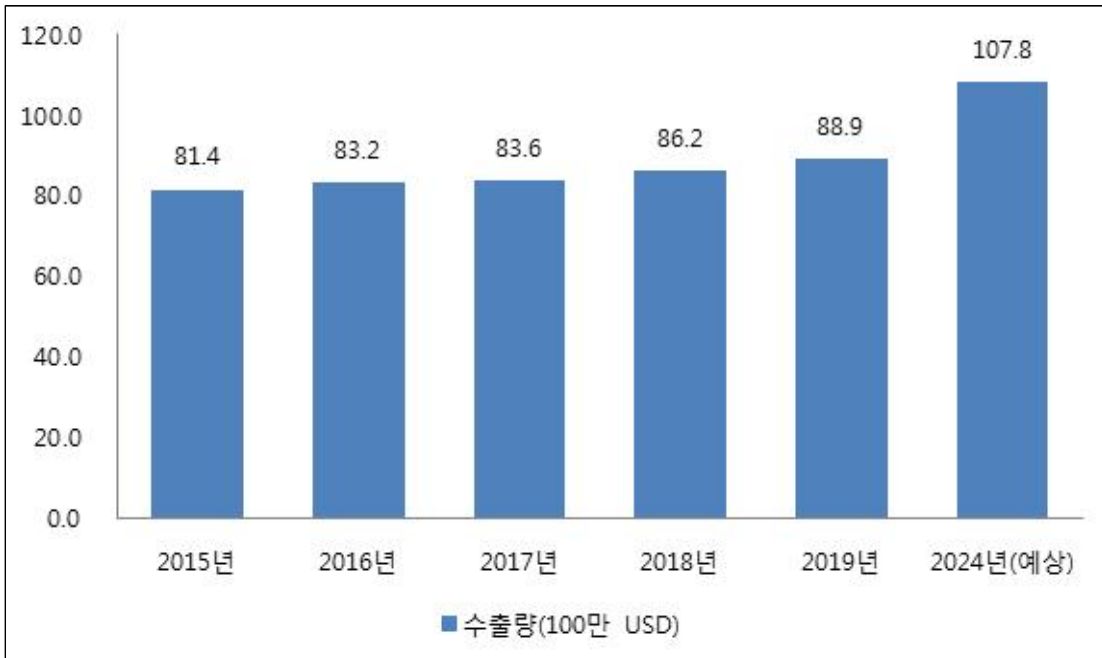
Source: Mordor Intelligence Analysis

Production Value in USD million : 백만 달러의 생산 가치

1.8.4 알스트로메리아

- 2018년 콜롬비아 화훼시장에서 알스트로메리아 품목은 전체 화훼시장의 5.6%를 차지했음
- 콜롬비아 화훼시장의 알스트로메리아는 2018년 8,620만 달러였으며 2024년까지 17,7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성장률은 3.9%로 예상됐음 (표 9)
- 2017년 콜롬비아 화훼 수출업자협회(ASOCOLFLORES)에 따르면, 알스트로메리아의 총 재배면적은 약 389헥타르로 조사되었음
- 콜롬비아에서 화훼 재배업자들은 40년 넘게 수출해 왔고, 세계에서 가장 이국적이고 다양한 수출품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측됨

표 9. 2015-2024 콜롬비아 알스트로메리아 화훼시장 (100백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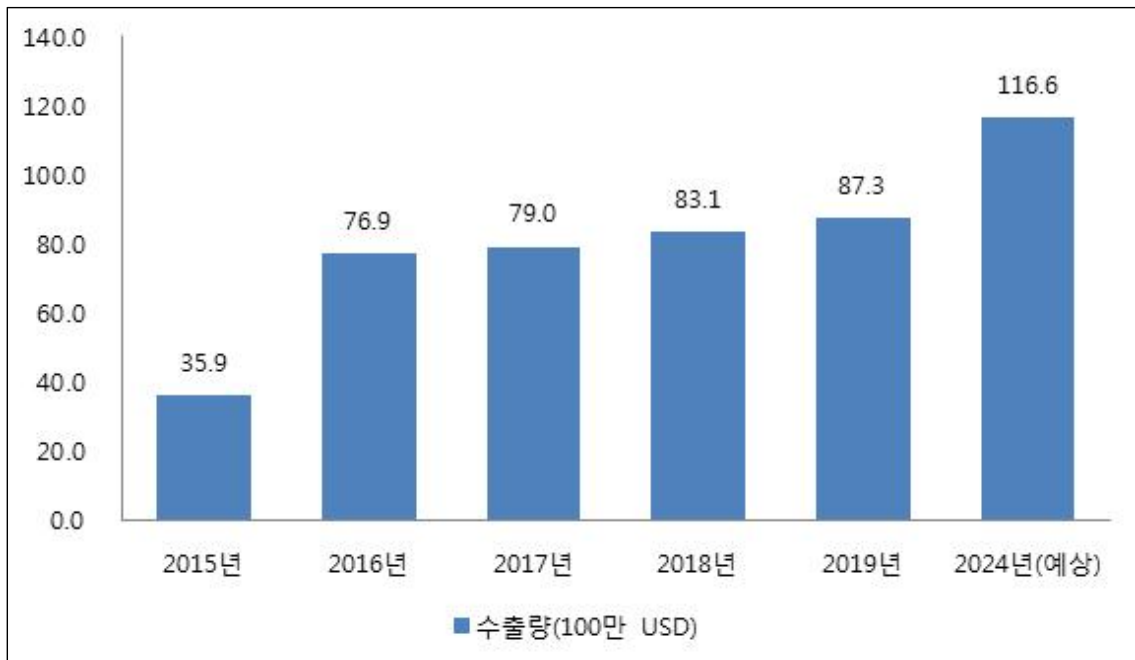
Source: Mordor Intelligence Analysis

Production Value in USD million : 백만 달러의 생산 가치

1.8.5 수국

- 2018년 콜롬비아 화훼시장에서 수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달했음
- 콜롬비아 화훼시장의 수국은 2018년 8,310만 달러였으며, 2024년까지 16,6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기간 중 5.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표 10)
- 콜롬비아에서 수국 생산량이 늘어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
- 주요 요인으로는 꽃의 큰 크기, 다양한 색상이다. 이런 매력이 화훼 시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됨
- 수국은 꽃다발이나 대규모 행사에 자주 사용됨
- 수국 수출 상위 5개 업체는 Guamito SAS, Flores Del Este, C.I. San Francisco Gardens, Comercializadora Internacional Zion Flowers Sociedad Por Acc, and FlorAndina 등이다. 이들은 2017년 기준으로 약 5,800만 달러를 수입하였고 이는 총 수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표 10. 2015-2024년의 콜롬비아 수국 화훼시장(100백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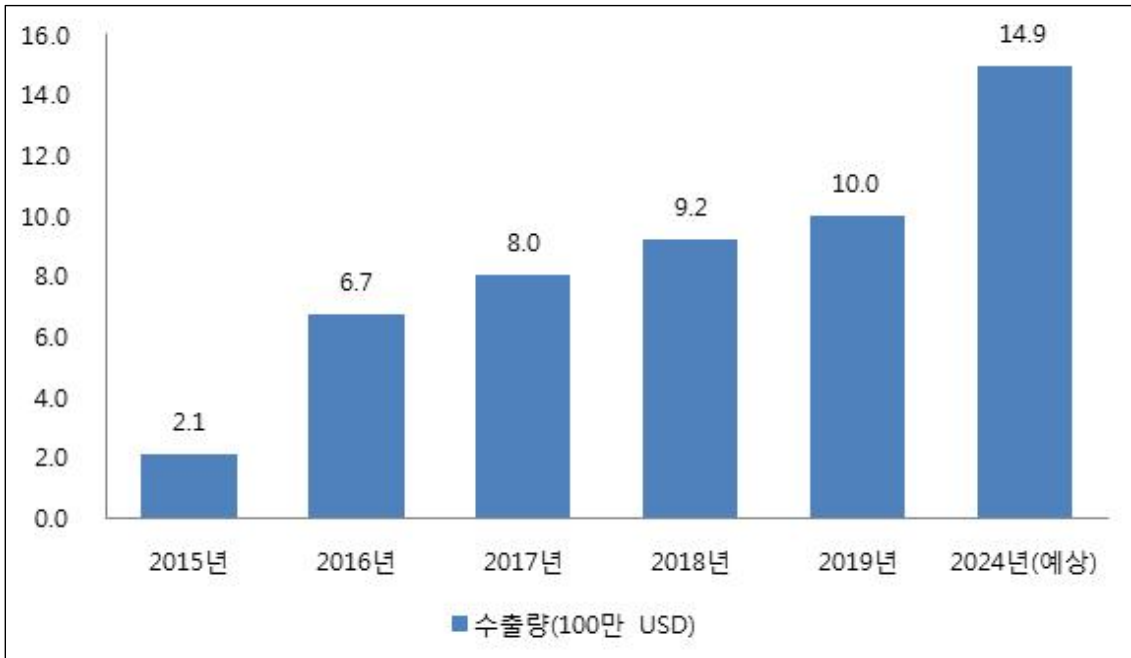
Source: Mordor Intelligence Analysis

Production Value in USD million : 백만 달러의 생산 가치

1.8.6 백합

- 표 11을 보면, 콜롬비아 화훼시장에서 백합 부문은 2018년 920만 달러였으며, 2024년까지 1,4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성장률은 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콜롬비아 화훼시장에서 백합이 차지하는 부분은 0.6%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했음
- 2017년 콜롬비아 화훼 수출업자협회(ASOCOLFLORES)에 따르면, 알스트로메리아의 총 재배면적은 약 63헥타르로 조사되었음
- 콜롬비아에서 백합의 가장 비중이 큰 수출국은 미국으로 수출량의 94.7%를 수출하였고 2108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천만 달러이며 수출량은 1,741톤에 달함
- 그 외 수출국은 캐나다, 프랑스, 자메이카, 싱가포르 등이 있음

표 11. 2015-2024년의 콜롬비아 백합 화훼시장 (100백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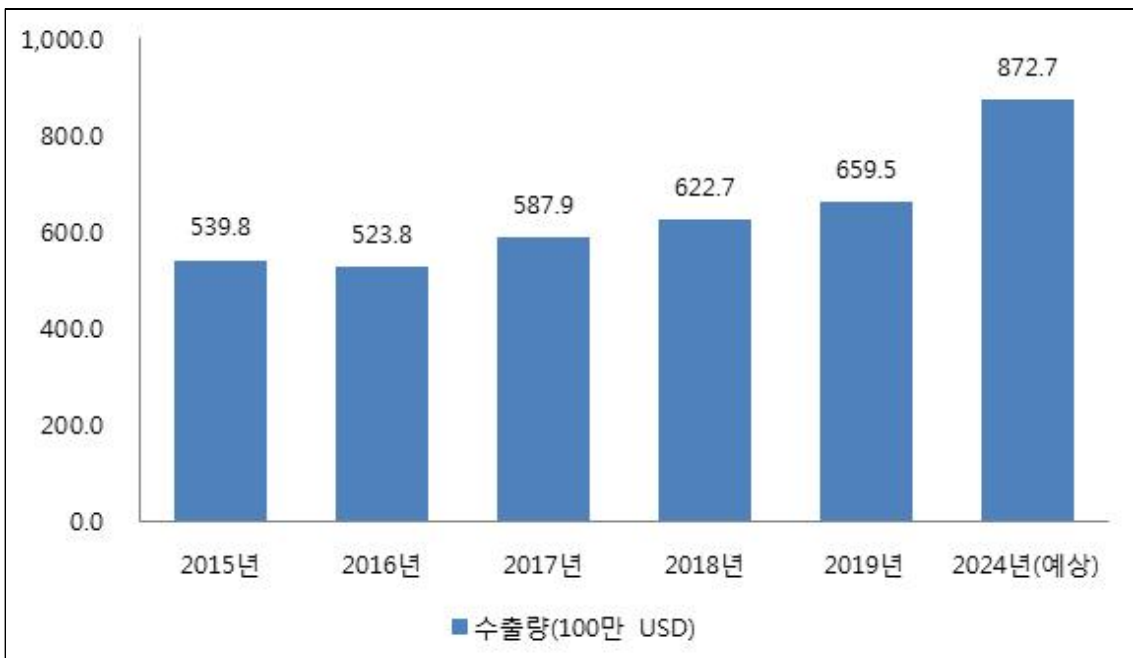
Source: Mordor Intelligence Analysis

Production Value in USD million : 백만 달러의 생산 가치

1.8.7 기타

- 콜롬비아 화훼시장에서 주요 품목 이외의 다른 종류는 2018년 62,270만 달러였으며, 2024년까지 87,2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기간 5.8%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표 12)
- 기타 품종의 종류로는 난, 과꽃, 안개꽃, 거베라 등이 있음
- 콜롬비아에서 재배되고 있는 난 종류는 약 4,000여 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 종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1,543종은 콜롬비아에서만 재배되는 특이한 종임
- 2018년 8월 Antioquia주에서 열린 식물 박람회에서는 300명 이상의 콜롬비아 난 재배자들이 참가하였다. 박람회를 통해 교육 세미나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교류를 통해 육종가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음
- 콜롬비아 꽃을 수입해 유통하는 업체는 미국 내 150여 곳으로 대부분 마이애미 지역에 위치해 있음
- 화훼 수출업자협회(ASOCOLFLORES)에 따르면, 2017년 과꽃, 안개꽃, 거베라는 150헥타르의 땅에서 수확되었음

표 12. 2015-2024년의 콜롬비아 기타 품목 화훼시장 (100백만 USD)



Source: Mordor Intelligenc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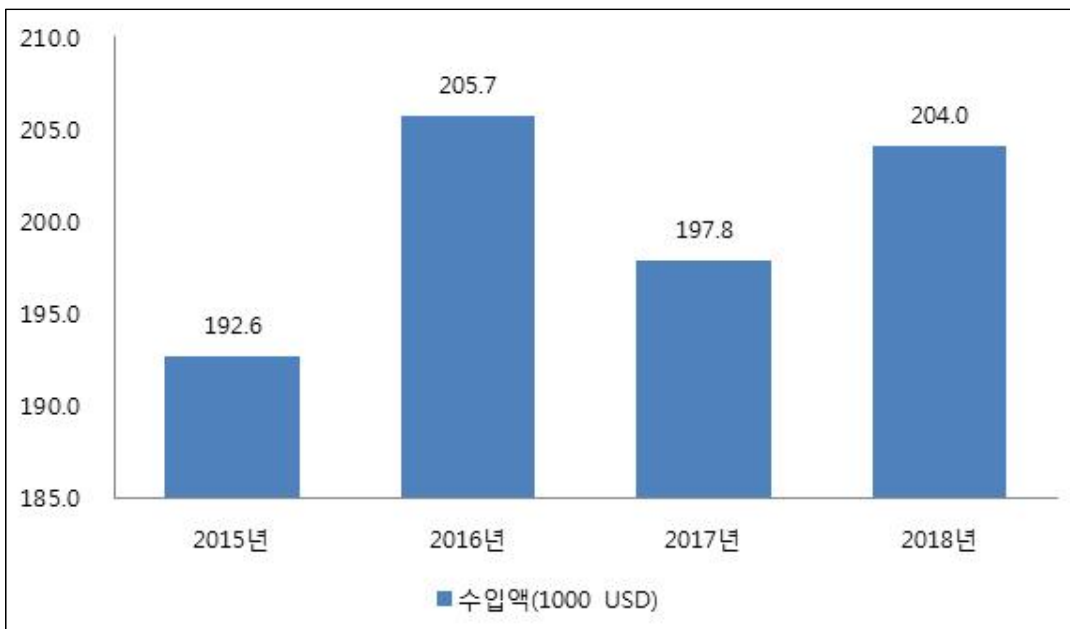
Production Value in USD million : 백만 달러의 생산 가치

1.9 화훼농가의 분석

1.9.1 절화소득규모 분석

- 콜롬비아에서 수출되는 농산품 중에서 화훼부분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꽃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콜롬비아는 네덜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꽃 수출국임
- 2012년 이후 절화재배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콜롬비아의 화훼 산업은 농민, 중산층, 상인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있음(표 13)
- 콜롬비아 화훼 재배의 소득 규모는 광대한 수명 연장, 작물의 발효 모니터링 등과 같은 첨단기술 등 다양한 구현을 통해 이익을 높이고 있는 외국 계열사의 투자 증가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음
- 하지만, 농지 1ha당 가격은 무역 관세, 변동통화, 로열티 등 다양한 이유로 변동되고 있음

표 13. 2015-2024년의 콜롬비아 화훼재배로 발생한 농장수입 (100백만 USD)



Source: Mordor Intelligence Analysis

Production Value in USD million : 백만 달러의 생산 가치

1.9.2 절화화훼재배면적 분석

- 콜롬비아 화훼시장은 커피 다음으로 콜롬비아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수출 분야 중 하나이며, 콜롬비아에서 꽃 재배 면적은 2017년 6,796ha로 2018년에는 7,532ha로 늘어났음(표 14)
- 콜롬비아 화훼농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종은 장미, 수국, 카네이션, 국화 그리고 백합 순이며, 이들 농장의 약 90%는 Bogata와 Medellin에 위치하고 있음
- USDA보고서에 따르면 총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약 85%의 꽃들은 온실에서 재배됨
- Asocolflores에 따르면, 2017년 콜롬비아에서 재배되는 꽃 중 장미의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전체의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610ha임
- 이어 수국이 19.6%로 1,479ha와 카네이션이 12.1%를 차지하였으며 재배면적은 909ha로 그 뒤를 이었음
- 또한, 콜롬비아 재배업자들은 세계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꽃을 재배했음
- 그 중, Suntroy 화훼 유한회사의 자회사인 Folrigene은 유럽 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파란색 카네이션과 일본 시장을 위한 파란 꽃잎 장미를 개발했음
- 콜롬비아 화훼 재배업자들은 또한 소비자들의 기대 품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실, 통합 해충 관리 등과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음
- 기후 조건, 인프라 개발, 정부 정책, 콜롬비아 화훼시장의 가치 등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더 많은 화훼 회사/농장을 설립하게 함으로 생산 면적을 늘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됨

표 14. 2014-2018년의 콜롬비아 화훼재배면적 분석



Area in hectare : 헥타르 지역

1.9.3 절화성장설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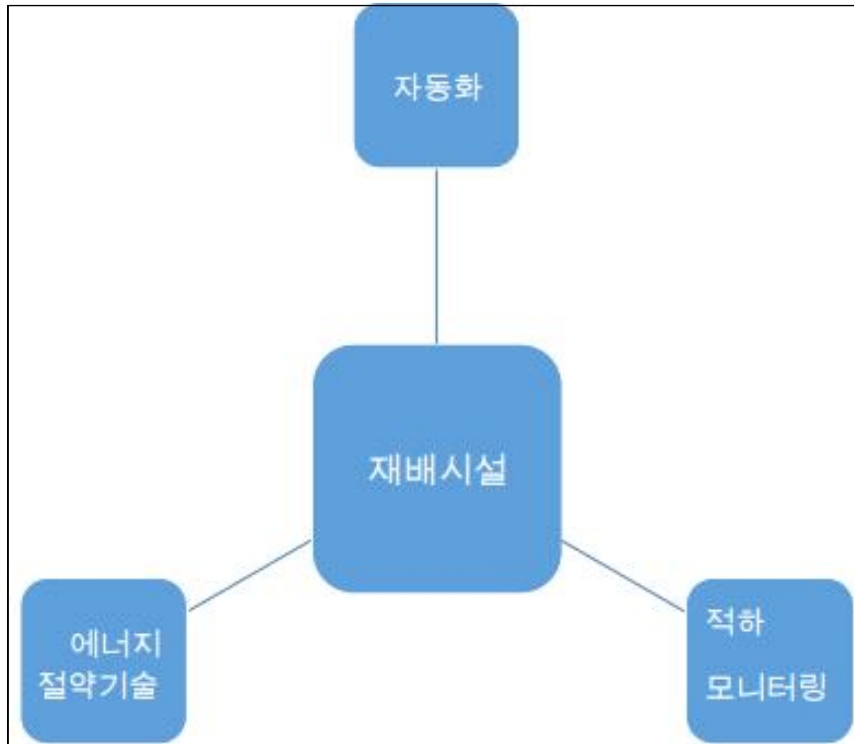


그림 6. 절화 성장 설비 도식도

- 콜롬비아의 절화수출은 수익에 활기를 띠고 있다. 화훼산업은 주로 유전적으로 변형된 품종과 온실에서 재배된 품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 일몰 후 열과 조명을 활용한 생산이 주를 이루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약 30% 감소하였음(그림 6)
- 생산, 유통, 소매, 그리고 소비의 각 단계에서 보존용액을 사용함으로써 분화생명연장기술 또한 실행했음
- 주요 업체와 연구자들은 내성이 높은 식물 품종의 식별을 위해 DNA 표식을 개발해 재배 기간을 단축하려 하고 있다. 이런 연구방향은 상업적인 화훼 생산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됨
- 콜롬비아 정부는 화훼부문의 농작물에 대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동화 및 관비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전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재배하는 품종에 적합한 기후와 영양 관리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1.10 콜롬비아 화훼 재배 기술

1.10.1 절화장미와 카네이션 유전자 공학

- 다른 꽃 수출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콜롬비아 화훼 수출업체들은 재배하는 화훼 작물에 유전 공학을 접목시켜 경쟁국들로부터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음
- 콜롬비아에서는 여러 유전자 조작을 한 농산물 상업적 생산의 목적을 위하여 경작 되고 있는데 그 품종이 바로 파란색 카네이션과 파란장미로 12ha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음
- 선트로이꽃 유한공사 자회사인 Folrigene콜롬비아 꽃 재배업체 폴리지엔은 2015년 파란색 카네이션을 선보였음
- 페튜니아의 푸른 유전자는 카네이션에서 이 색깔을 얻는데 사용되었음
- 이 회사는 일본 시장에서 파란 장미가 문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푸른 장미를 개발하기도 했음
- Folrigene 는 콜롬비아 재배회사인 Suntroy flowers의 자회사로, 2015년 파란색 카네이션을 소개하였음
- 특히 페튜니아의 파란색 유전자가 파란색 카네이션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졌다고 하고, 파란 카네이션은 유럽시장의 개척, 파란장미는 특히 일본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어졌다고 함
- GAIN 2018 USDA 보고서에 따르면, 파란 장미 한 송이의 가격으로는 약 40~50달러로 추정됐다.
- 국립농수산물 산업기술위원회(CTN-Bio)는 꽃을 비롯한 비식품 분야와 관련된 모든 유전공학 제품을 승인하는 기관이임
- 유전자 조작 작물이 CTN-Bio의 승인을 받으면, 콜롬비아 정부는 이 작물을 상업적 생산에 도입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승인해 줌

1.10.2 해외투자과 자본유입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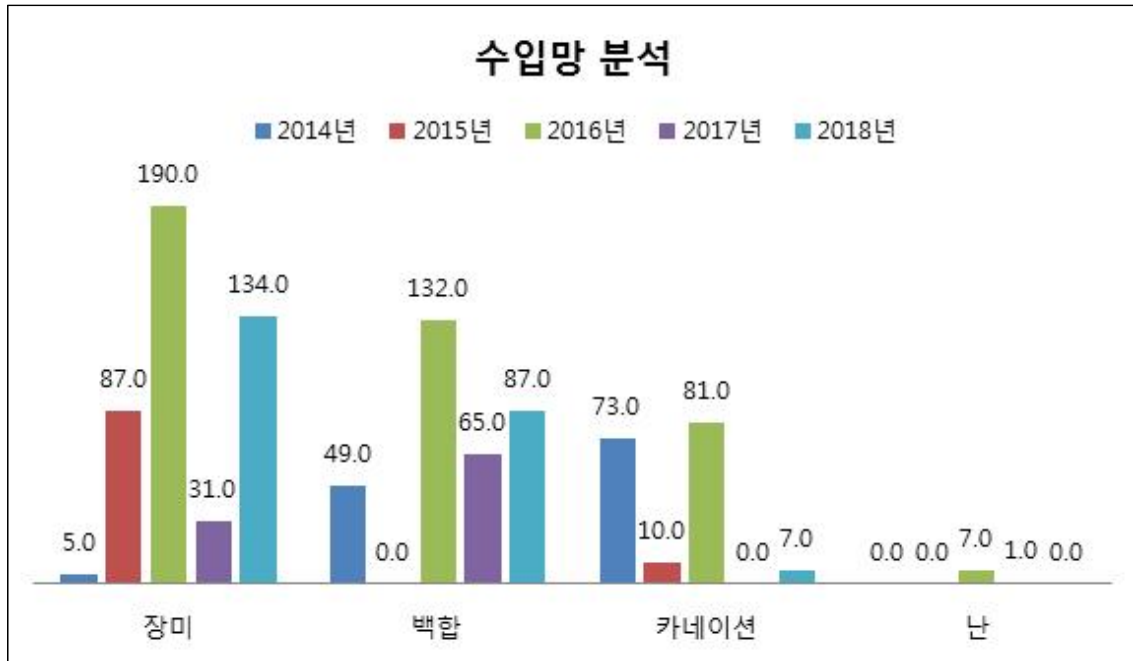
- 중남미 및 카리브해(CEPAL)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 대비 0.5% 증가했으며, 이 증가 수치는 콜롬비아 경제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정부들이 투자한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콜롬비아에는 400여개 해외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이 중 300여개 업체가 세계 시장에 꽃 수출을 전담하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세금 감면, 자유무역지대 정권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투입재료에 대한 수입세 면제 등을 통해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1.11 공급망 분석

1.11.1 수입망 분석

- 콜롬비아의 화훼 수입액은 2012년 640만 달러였으며, 2018년에는 590만 달러로 약 8% 줄었음
- 에콰도르는 콜롬비아의 주요 꽃 수출국으로 콜롬비아의 전체 꽃 수입 점유율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 장미와 백합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꽃임
- 콜롬비아의 백합 수입액은 2018년 87,000달러로 2017년 65,000달러에서 올해 22,000달러로 늘었음(표 15)
- 그러나 콜롬비아의 전반적인 꽃 수입량은 감소함
- 이는 재배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가 다양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기 때문임
- 프로콜롬비아(Colombia Export Procellation Agency, Colombia Export Procellation Agency)에 따르면, 2015년 콜롬비아는 미국에 약 10억 달러 상당의 꽃을 수출했는데, 이 중 12%가 발렌타인데이 시즌이었음
- 미국시장에서 장미를 포함한 콜롬비아의 꽃에 대한 수요는 발렌타인데이 시즌과 어버이날 시즌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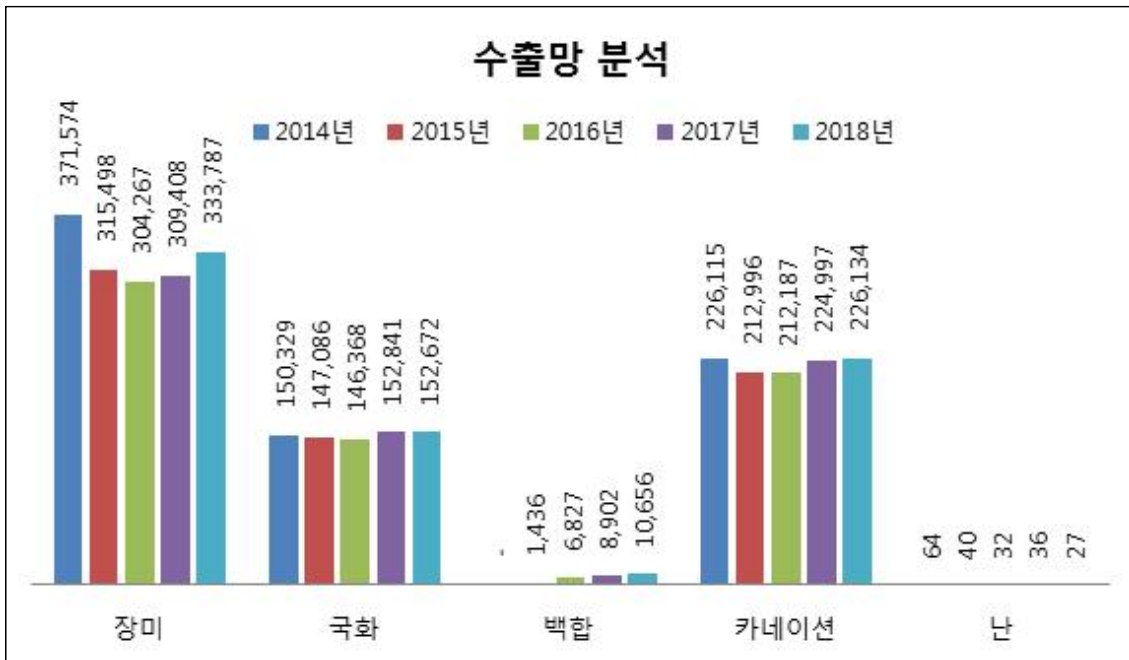
표 15. 2014-2018년의 콜롬비아 화훼시장 수입량 분석 (1,000 USD)



1.11.2 수출 분석

- 콜롬비아에서 수출하는 주요 농산물로는 커피, 꽃, 바나나 등이 있음
- 콜롬비아의 꽃 수출액은 2017년 13억 달러로 4% 증가했고 2018년 14억 달러로 늘어났음(표 16)
- 콜롬비아 절화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며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2017년 콜롬비아 화훼 수출 총액의 75%를 차지할 만큼 많이 수출했음
- 꽃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는 2월 발렌타인데이, 5월 어머니의 날, 11월 추수감사절, 12월 크리스마스 등으로 이 기간 동안 콜롬비아 꽃 수출업자들은 보다 많은 꽃과 질 좋은 꽃을 생산하여 화훼시장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Asocolflores(콜롬비아 꽃 수출업자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에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카타르, 프랑스의 수출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고 함

표 16. 2014-2018년의 콜롬비아 화훼시장 수출량 분석(100만 USD)



1.11.3 분석시장유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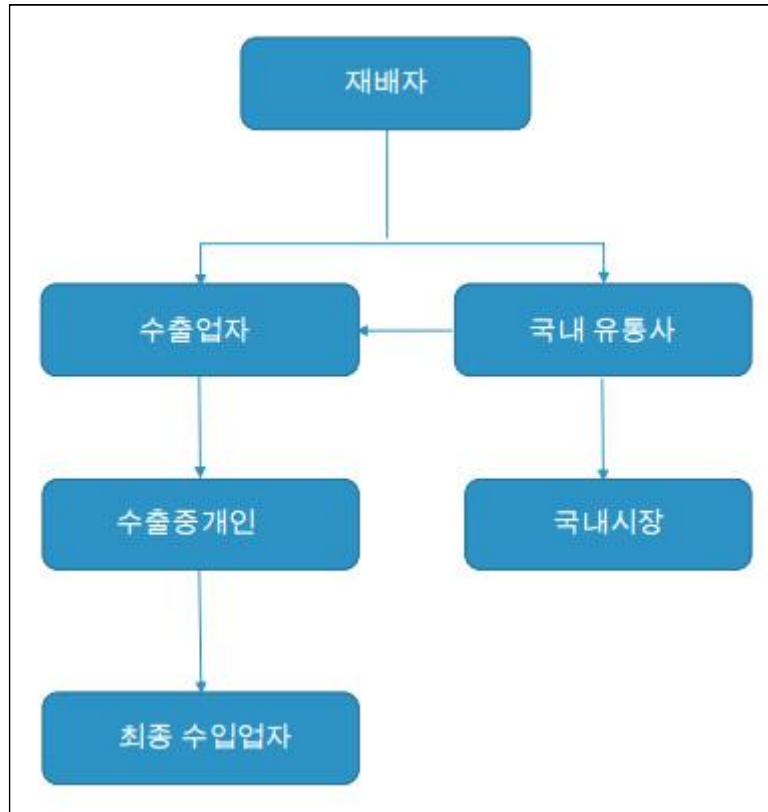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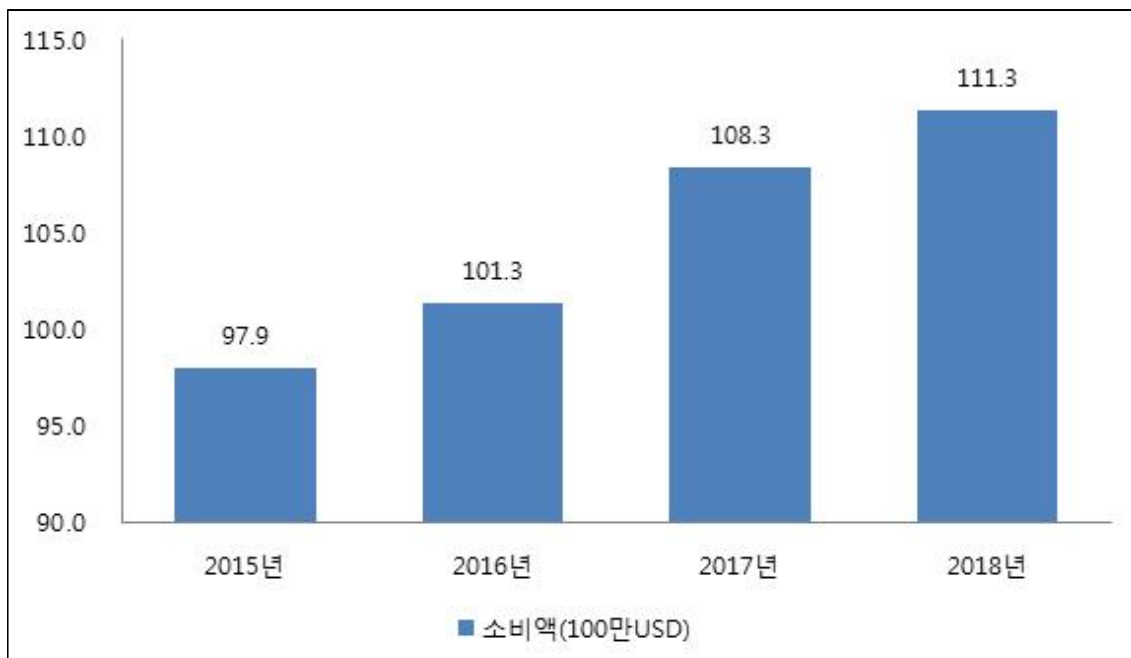
그림 7. 콜롬비아 화훼시장 유통경로

- 미국 수출중개업 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전체 재배된 꽃의 약 78%는 미국에게 꽃을 수출함(그림 7)
- 절화의 특성상 수송기간이 길어지면 꽃은 금방 시들기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수확 후 바로 항공운송을 통하여 이동함
- 이렇게 배송된 꽃들은 보고타 공항과 마이애미 공항 시설에 의해 미국 꽃 시장으로 신속하게 운반됨
-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는 센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TFF라는 프로그램 시작함
- 이 프로그램은 콜롬비아 정부와 Asocolflores가 공동으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제품 판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시켰음
- 콜롬비아 화훼업체들은 ‘플로라몬도’ 라는 디지털 on-line 시장을 통해서도 다양한 꽃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 디지털 플랫폼은 Flora Holland (네덜란드 경매센터)에 의해 운영됨

1.12 소비자 선호 분석

- 표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7년 국내 시장에서 꽃 소비량은 10,830만 달러로, 2018년에는 269% 증가해 11,130만 달러에 달했음
- 미국, 일본, 중국, 영국은 콜롬비아로부터 꽃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 중 하나임
- 콜롬비아 국내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꽃들은 장미, 카네이션, 국화, 수국이고 주로 결혼식의 부케 또는 각종 기념일에 사용됨
- 콜롬비아 노동 임금은 매우 낮아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우수한 품질의 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 꽃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음
- 또한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꽃보다는 좀 독특한 색과 향기를 가진 꽃을 원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이런 취향을 파악하여 Suntroy Flowers는 ‘Blue Petal Roses’ 라는 파란색상을 가진 장미를 개발하여 상품화시켰고 이 꽃은 어디에서도 잘 볼 수 없는 특별한 색상을 가져 특히 일본에서 매우 인기가 많음
- 환경에 대한 내용에 민감한 신세대 소비자들은 유기농 라벨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꽃을 구입할 때도 다른 꽃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꽃들을 선호함

표 17. 2015-2018년의 콜롬비아 소비자들의 꽃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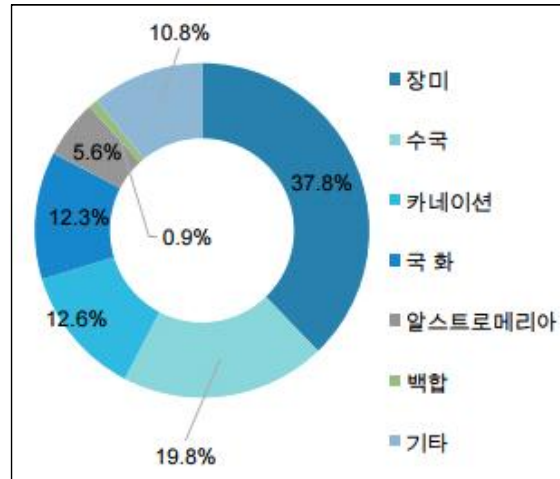
1.13 콜롬비아 화훼 시장트렌드

- 꽃과 식물의 운송은 소비자가 주문한 시간부터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의해 신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자에서 공급자에게 가는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열대 꽃 재배업자들은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배달을 하기 위해 자국 내 IOT와 같은 현대 기술 이용함
- 신세대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더싼 가격으로 구입하기 원하며 품질은 좋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구매형태임
- 콜롬비아의 낮은 노동임금은 콜롬비아 꽃 재배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함
- 2018년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육종가를 지원하고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예식물 재배장을 열었음
- 또한 소비자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훼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몇몇 주요 꽃 재배 회사들이 유전 공학 기술을 통해 파란 카네이션과 파란 장미와 같은 몇몇 새로운 품종을 연구비를 투자하여 개발에 성공했음

1.14 콜롬비아 화훼 재배면적

표 18. 품목별 화훼재배면적 점유율(2018년)

종류	재배면적	비고(%)
장미	2871.0	37.8
수국	1505.6	19.8
국화	960.1	12.6
카네이션	936.3	12.3
알스트로메리아	427.9	5.6
백합	69.3	0.9
기타	822.8	10.8
총계	7,593.0	100



1.15 화훼재배방법

- 콜롬비아에서는 화훼재배를 위해 노지 재배와 시설 재배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표 19)
- 콜롬비아에서 시설 재배 방법으로는 온실 및 수경재배와 같은 재배 방법이 포함됨
- 화훼 온실은 주로 고원지역의 햇볕이 잘 드는 Antioquia의 두 대도시인 Bogotá Savannah와 Rio Negro Region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7,500헥타르 이상의 땅에서 꽃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온실 조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그 외는 노지에서 생산됨

표 19. 콜롬비아 지역별 화훼재배 면적

지역	재배면적(헥타르)	비고 (%)
Cundinamarca	5045	67
Antioquia	2439	32
Caldas	25	0.3
Valle de Cauca	16	0.2
Boyacá	4	0.05
Risaralda	2	0.02
Quindío	1	0.01

1.16 재배시설 발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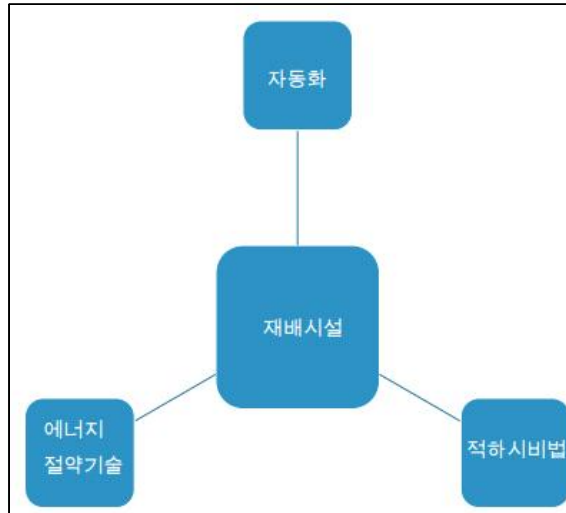


그림 8. 재배방법 발전 도식도

- 주요 꽃 재배 지역별로는 Cundinamarca와 Antioquia 등이고, 2018년 콜롬비아 전체 화훼 재배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지역들에서 재배되는 화훼량은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콜롬비아의 수출을 위해 꽃을 생산하는 재배업자가 400개 이상이지만 이 농가중 300개의 농장만이 수출을 하고 있음
- 이렇게 늘어나는 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냉장 보관실, 자동 컨베이어 벨트 등 다양한 기술주도 재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그림 8)
- 콜롬비아 화훼 수출 협회(ASOCOLFLORES)는 국내 화훼 생산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콜롬비아의 화훼산업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작물, 시설재배, 온실재배 등의 시설원예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성과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일몰 후 열과 조명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화훼생산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를 약 30%나 절약하고 있음
- 생산, 유통, 소매 및 소비의 각 단계에서 방부제를 사용하여 수명연장 기술 또한 실현되고 있음
- 주요 기업과 연구자들은 내성이 높은 식물 품종의 식별하기 위해 DNA표식을 먼저 개발함으로써 번식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성과는 수출을 위한 화훼생산에 도움이 됨
- 온실의 자동화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화훼부문은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농작물에 대한 자동화와 조사 감시를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이는 농가나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온실의 창문과 출입문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됨

1.17 재배기술 방법의 트렌드

1.17.1 유전적으로 변형된 장미와 카네이션

- 다른 화훼 수출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콜롬비아의 화훼 수출업체들은 그들이 재배하는 화훼에 유전 공학을 접목시켜 경쟁업체들과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콜롬비아에서는 상업적 생산을 위해 유전자 조작한 꽃들이 재배되고 있음
- 이런 예로는 파란 카네이션과 파란 장미가 약 12ha에 재배되어 수출이 되고 있음
- ‘Suntroy’ 기업의 자회사인 ‘Folrigene’ 은 페츄니아의 푸른 유전자를 사용하여 2015년 파란색 카네이션을 출시하였음
- 이 상품은 유럽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수출액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또한 파란 장미를 개발하여 일본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도 하였음
- USDA의 GAIN2018 보고서에 따르면, 파란장미 1잎이 40-50달러까지 평가되었다고 함
- 유전공학에 의해 만들어진 품종들은 국가기술위원회 (CTN-Bio)에 제 품을 승인을 받아야함
- 유전자 공학적 작물이 CTN-Bio에 의해 승인되면,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상업적 생산을 위해 도입하도록 승인됨

1.18 화훼시장 트렌드

- 콜롬비아는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데이지, 헬리코니아. 안투리움 등 1,600개 이상의 품종을 수출하기 위해 재배하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큰 카네이션 재배업자이자 공급자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훼 수출국이기도 함
- 장미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꽃으로 국화, 백합, 카네이션 등이 그 뒤를 잇고 있고, 수출하는 국가는 90개여국이며, 수출량의 3분의 1은 미국으로 수출됨(표 20)
- 특히 미국은 절화 장미의 70%, 국화 98%, 카네이션과 아스트로메리아 99%를 콜롬비아에서 수입하는데, 이 꽃들은 다양한 행사나 축제에서 사용되어지며, 이렇게 많이 소모되는 이유는 매우 인기가 있기 때문임
- 다양한 종류의 꽃은 선호도와 인기에 따라 그 나라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생산 및 재배면적 수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행사나 축제에 따라 선호하는 꽃은 다르다. 예를 들어 사랑과 애정의 상징인 장미와 카네이션은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어머니의 날에 선물함
- 또한, 부활절에 가장 선호하는 꽃은 흰 백합과 분홍색 카네이션으로, 이 꽃들은 신앙심, 순결,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 Feria des Flores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꽃으로 이 날을 기념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카네이션과 장미이고 꽃은 이러한 행사 외에도 생일, 결혼식, 장례식 등에 널리 사용됨

표 20. 가장 선호하는 절화 재배유형, 생산가액(백만USD)과 재배면적(ha)

종류	생산가액(100만달러)	재배면적(ha)
장미	338.4	2,871.0
국화	166.1	960.1
카네이션	246.8	936.3
아스트로메리아	86.2	427.9
수국	83.1	1505.6
백합	9.2	69.3

1.19 공급망 분석

1.19.1 무역분석-수출경쟁력

- 콜롬비아에서 재배한 꽃의 수출액은 2018년 145,800만 달러였으며, 2024년까지 155,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기간 동안 약 2%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표 21)
- ITC Trade Map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미국은 콜롬비아 꽃의 최대 수입국으로, 2018년에는 총 점유율 78.4%로 미화 114,300만 달러였음(표22)
- 그 외 주요 수입국은 일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로, 같은 기간 전체 시장점유율은 각각 3.7%, 2.8%, 2.7%, 2.4%로 나타났음(그림 9)

표 21. 2014-2018년도의 콜롬비아 화훼시장 수출가치(1,000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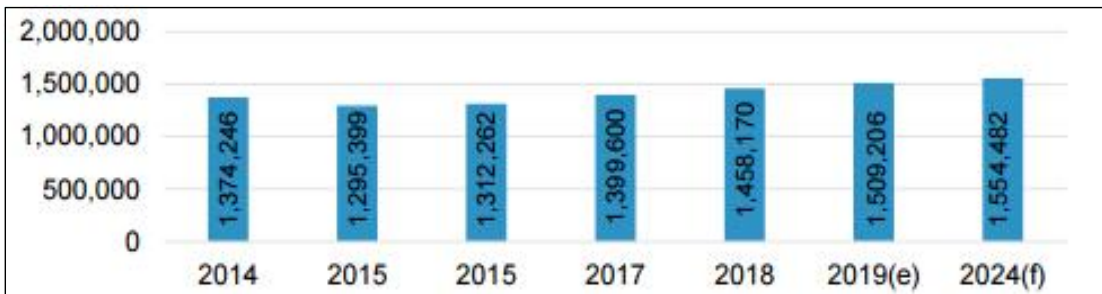


표 22. 콜롬비아 화훼시장 주요 수출국가의 수출액(1,000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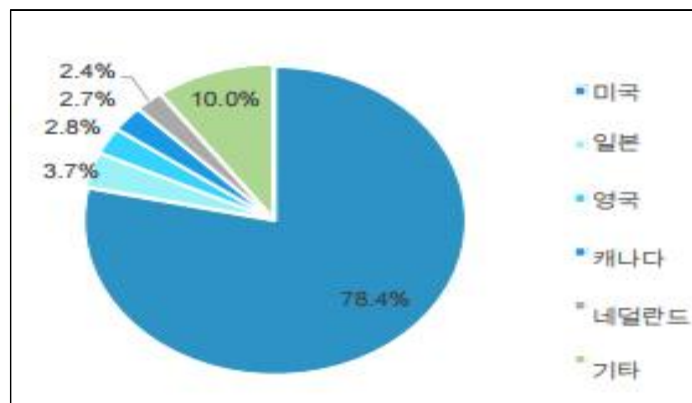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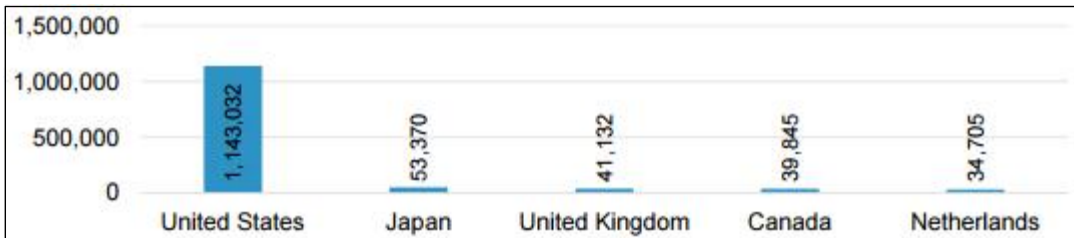


그림 9. 2018년 콜롬비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제3차년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화훼류종묘 수출연구사업단
(콜롬비아 동향보고서)